# 광주FC, 안방서 전북 잡고 파이널A 확정 노린다

## 24일 11경기 연속 무패 도전…승리 땐 남은 두 경기 상관없이 진출

광주FC가 안방에서 두 번째 파이널A 확정을 노린다.

광주는 24일 오후 2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전북현대를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1 2023 31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11경기 연속 무패에 도전하는 광주는 상승세를 이어 파이널A 진출까지 동시에 노린다. 광주는 앞서 1위 울산현대에 이어 FC서울까지 잡아내면서 13승 9무 8패의 전적으로 승점 48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앞선 라운드에서 창단 후 첫 서울 원정을 승리로 장식하는 등 광주의 분위기가 뜨겁다.

거칠 것 없는 광주의 시선은 이제 두 번째 파이널 무대로 향한다.

광주가 이번 라운드를 통해 다시 한번 6위 전북을 잡아낸다면 남은 두 경기 결과에 상관 없이 파이널A를 확정하게 된다.

전북전 승리시 광주는 '승점 51'이 된다. 현재 승점 43(12승 7무 11패)인 전북이 패배 뒤 남은 두 경기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승점 49가 되기 때문에 광주는 남은 두 경기 결과 상관 없이 전북을 따돌리게 된다.

현재 4위 대구FC(승점 44), 5위 FC서울(승점 43), 7위 인천유나이티드(승점 43)가 남은 세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긴다고 가정하면, 이들의 승점은 각각 53, 52, 52가 된다.

남은 경기에서 맞대결 대진까지 계산하면 세 팀이 모두 최대 승점을 채우지는 못한다. 대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으로 세 팀이 3승을 거두고, 광주가 전북전 승리 이후 남은 두 경기를 모두 패한다고 해도 이미 파이널A를 확정한 1위 울산현대, 2위 포항스틸러스 포함 6위 안에 자리하게 된다.

이번 전북전에서 승리를 거두면 광주는 2020시즌 이후 3년 만에 파이널A를 확정하게 된다.

광주는 앞선 서울전에서 투혼의 승부로 1-0 승리를 만들었다. 이희균이 부상으로 전반전에 예상치 못하게 이탈했고, '스타군단' 서울이 총공세를 벌이면서 61%의 점유율과 함께 18개의 슈팅을 날렸지만 광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전반 4분만에 허율이 선제골을 기록했고, 골키퍼 김경민은 9개의 유효슈팅을 모두 저지하면서 승리를 지켰다. 국가대표로 A매치에 나섰던 이순민과 아사니도 피로 누적에도 제 몫을 해주면서 '전적' 서울 공략에 기여했다.

광주FC가 2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전북현대를 상대로 31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한달 만에 진행되는 홈경기에서 광주는 11경기 연속 무패 기록과 파이널A 확정을 노린다. 사진은 엄지성(오른쪽)이 전북전에서 공을 다투는 모습. 〈광주FC 제공〉

안방에서 만나는 전북은 K리그 최다 우승을 자랑하는 '강호'로 김진수를 비롯해 구스타보, 문선민, 홍정호, 안현범, 아마노 준 등 쟁쟁한 선수들로 전력을 꾸리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최근 3무 2패를 기록하면서 5경기 연속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백승호와 박진섭, 박재용, 송민규 등 핵심 멤버들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로 자리를 비웠고, 지난 20일에는 홍콩의 키치 SC를 상대로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일정도 소화했다.

올 시즌 광주는 전북과 1승 1패를 주고 받았다. 승리는 홈에서 장식했다. 광주는 지난 6월 24일 홈경기에서 이순민과 이건희의 골로 전북을 상대로 2-0승리를 기록했다.

이번 경기는 지난 8월 27일 수원삼성전 이후 한 달 만에 진행되는 홈경기다. 광주가 홈팬들 앞에서 파이널 A 진출을 확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득남 임기영 "아빠의 책임감으로 더 열심히 던지겠다"

## "동기 부여 확실히 생겨" 위기의 KIA 살리기 앞장

"아빠의 책임감으로 더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연패와 부상 등으로 웃을 일 없는 KIA 타이거즈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KIA 마운드에서 전천후 활약을 하고 있는 사이드암 임기영이 지난 18일 아들을 얻으면서 아빠가 된 것이다.

예정일 보다 일찍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임기영은 정신 없는 며칠을 보냈다.

임기영은 "10월 1일이 예정일이었다. 진료보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양수가 터져서 급히 수술을 했다. 그래서 정신이 없었다. 너무 갑자기 아빠가 됐다"면서도 "보면 볼수록 아들이 너무 귀엽다. 아직 아빠가 됐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웃었다.

아빠라는 역할이 더해진 올 시즌, 임기영은 팀에서도 '마당쇠'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선발에서 불펜으로 자리를 이동한 임기영은 올 시즌 55경기에 나와 75.2이닝을 소화했다. 좋은 제구력을 바탕으로 팀의 승리를 지켜야 할 때는 물론 선발진의 난조로 갑자기 마운드가 흔들릴 때에도 임기영이 우선 마운드에 오르고 있다. 멀티 이닝도 소화를 하는 등 임기영은 말 그대로 '전천후 활약'을 하고 있다.

시즌 내내 선발진의 부상·부진이 이어지면서 임기영의 어깨는 더 무거웠다.

남은 시즌에도 임기영의 역할은 막중하다. 선발진 고민 속 KIA는 가장 많은 23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더블헤더 일정도 KIA를 기다리고 있다.

막판 순위 싸움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지만 부상 악재도 겹쳤다. 9연승 질주를 이끌었던 타선에 빈틈이 생겼다.

톱타자 박찬호가 다시 방망이를 들고 타석 복귀를 준비하고 있지만 손가락 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여기에 부상 복귀 후 뜨거운 시즌을 보냈던 타석의 핵 나성범도 20일 LG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됐다.

위기의 마운드에 힘을 실어주던 화력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임기영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임기영은 "더 잘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확실히 생겼다. 아이를 낳고 이틀 경기를 쉬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분유랑 기저귀 값도 벌어야 한다(웃음)"면서 "아직 위에 팀들과 게임 차가 많이 나지 않는다. 어제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열심히 던져서 팀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근 강원도 화천군 화천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17회 화천 평화배 전국조정대회 남자 중등부 더블스컬 1위를 획득한 광주체육중 선수단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체육중 제공〉

# 광주체육중 조정 '금빛 물살'

## 평화배 전국대회 금 2·은1 획득

광주체육중학교 조정부가 지난 16~18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17회 화천 평화배 전국조정대회 여자 중등부 싱글스컬 우승, 더블스컬 2위, 남자 중등부 더블스컬 1위의 성적을 거뒀다.

광주체육중에 따르면 여중부 싱글스컬 1000m에 출전한 노효림(2년)은 4분 09초39의 기록을 세우며 2위를 기록한 장성여중의 4분 19초78를 10초 차이로 제치고 우승했다.

더블스컬 1000m에 출전한 이수아, 권지영(이상 1년)은 평소 부족했던 스타트 기능을 보강해 3분 50초97의 기록으로 2위의 성적을 냈다.

남중부 더블스컬 박준호, 박성빈(이상 3년)은 3분 28초15를 기록해 강원 소양중(3분 44초93)을 약 16초 차이로 압도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준재 광주체육중 교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훈련을 거듭해 좋은 성과를 거둔 선수들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출전 선수들을 격려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송창영(가운데) 광주시체육회 부회장이 광주대 체육관에서 광주대 농구부팀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대 제공〉

# "전국체전서 광주의 저력 보여 달라"

## 광주시체육회, 광주대 여자농구부 방문 격려

광주광역시체육회(회장 전갑수)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하계강화훈련 중인 광주대학교 여자농구부를 격려 방문했다.

송창영(광주대 교수) 광주시체육회 부회장은 지난 19일 광주대 체육관에서 국선경 감독 이하 광주대 농구부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뒤 "많은 난관을 뚫고 6년 만에 2023KUSF 대학농구 U-리그 정상을 탈환한 선수단의 투혼과 포기를 모르는 도전정신에 감동했다"면서 "다가올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대학과 광주시 체육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출전을 앞둔 국선경 광주대 감독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전국체전에 대비해 남은 시간 개인 역량과 팀워크를 다져 다시 한번 광주대학교와 광주시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 1관 | 잠 |
| 2관 | 오펜하이머,<br>콘크리트 유토피아, 힙노틱 |
| 3관 | 달짝지근해: 7510 |
| 4관 | 그란 투리스모 |
| 5관 | 가문의 영광: 리턴즈 |
| 6관 | 잠 |
| 9관 |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br>노크: 더 하우스 |
| 7관씨네커플 | 폭로,<br>콘크리트 유토피아, 치악산 |
| 8관씨네커플 | 타겟 |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
일시 : 2023-09-01(금) ~ 30(토) 17:00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2023 공연예술축제 그라제
소리극 콜비츠와의 대화
일시 : 2023-10-17(화) ~ 18(수)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5